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8(土)	29(日)
호리고비 21/23℃	비후경 20/26℃

#### News

- 남도미항 유통회사 세운다 ②
- 촛불집회 오늘이 고비 ③
- 스페인 유로2008 결승행 ⑧

#### Books

- 부랑청년 전성시대 ⑭

#### Entertainment

- 컴백하는 역의 그룹들 ⑧
- 즐거운 애니메이션 세계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당귀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광주에 새로운 명문대학입니다

**남부대학교**  
 www.nabund.ac.kr

새로운 명문대학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 ■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 가보니

## “전문가도 육안 식별 힘든데...”

“마블링(쇠고기 지방층) 색깔이 흰 것을 보니 이건 미국산이나 멕시코산(쇠고기) 같은데...”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호주산도 최근에는 폴대신 곡물로 사육을 해서 마블링 색깔이 미국산만큼 희다고 들었어요.”

지난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동석 계장과 김재호 주무관, 이행희 주무관 등 원산지표시 전문 단속반이

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 다음주면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시작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개 출장소 단속반을 포함한 전남지원 전 직원 200여명을 불러 모아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된 교육도 했고, 경기도에서 열렸던 ‘쇠고기 원산지표시 전문

친개, 전남 2만3천개)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며 살펴야 할 대상이 7만3천여개로 급증한 셈이다.

올해 말까지 전남지원 내 가용 인력을 활용, 단속 인원을 170명으로 늘리고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상시 단속에 역부족이다. 업무 양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호 주무관은 “단속반이 발품을 팔며 꾸준히 움직이고, 꼼꼼히 살펴보면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전남지원 내 유전자(DNA) 분석실에서 소의 털이나 열기 서열 등으로 한우와 수입산만을 가릴 수 있을 뿐, 수입산 중 미국산, 호주산 등을 구분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호주산에 비해 저렴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골라 먹을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다.

박길천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산지 표시 강화,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판매업자들도 원산지를 숙의로써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작 47명이 식당 등 73,000곳 조사

### 미국·호주산 구분 시스템 조차 없어

시험용으로 보관중인 수입산 쇠고기를 들여다 보며 육안 단속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감사기도도 미국산과 호주산은 구별할 수 없다는데 육안 구별이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잘게 잘라져 식탁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또 양념이라도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한우와도 육안 구별이 사실상 안되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단속반 합동교육’에 직원을 보내 수입산 쇠고기 구별법도 터득하게 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전남지역을 담당하는 전남지원 단속반 총 인원은 47명. 지금까지는 광주·전남 지역내 3만3천여개의 음식점 등이 이들 관할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집단급식소 등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단속 대상 업소만 4만여개(광주 1만7

## 검역 미 쇠고기 출하 봉쇄

### 민노총 9개 창고 점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지난해 10월 초 이후 거의 9개월만에 재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경기도 용인(4개)·광주(4개)·이천(1개) 소재 9개 창고에 9개팀(2인 1조)의 검역관을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검역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경기도 12개 창고에 보관돼있는 미국산 빼빼는 살코기 약 2천t 가운데 일부다. 검역관과 인부들은 25~27kg가량의 냉동 쇠고기 상자들을 X선 검출기에 통과시켜 통뼈 등의 이물질 포함 여부를 살폈다. 이물질 검사 과정에서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현재 수도권 검역창고의 2천t과 부산항 컨

한국축구 이란·사우디·북한·UAE와 ‘죽음의 조’ ▶ 18면

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여 있는 약 3천300t 등 빼빼는 살코기 대개 물량 5천300t은 57개 수입업체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보통 3~4일이 소요되지만, 이날부터 검역이 시작된 물량은 계산상 다음주초면 시중에 풀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노총 등 미국산 쇠고기 반대축이 각 검역 창고에 집결, ‘출하 저지’ 실행 행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검역이 끝나더라도 창고 밖 수입업체에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부산항 냉동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3천300t 역시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미국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으로 검역창고로의 이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北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북한은 27일 오후 5시 5분께 성 김 미국부 한국과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미 CNN 등 6차 회담 참가국 언론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한측은 높이 20m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탑을 폭파하기 위해 200kg의 다이내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 오늘 광주·전남 최고 100mm 폭우

주말인 28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최대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휴일인 29일에는 비가 온 후 점차 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 광주·전남지역에 호우·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40~100mm.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

했다. 휴일인 29일에는 흐리고 비가 온 후 개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전망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을 기해 광주·전남지역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서해남부면바다·남해서부면바다 등에 풍랑 예비특보, 흑산도·홍도에도 강풍 예비특보를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도체로 피부에 주입한다

IOPE